

## 방미통위,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방송콘텐츠 해외 홍보 추진

- 부산서 '2026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 참여...특별 프로그램 운영 -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2026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에서 국내 방송 콘텐츠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홍범식)은 18일 부산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에 참여해 뉴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홍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와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티브이(FAST) 산업 및 미디어·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과 파라다이스호텔 일대에서 열린다.

앞서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열린 디지털·미디어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티브이(FAST) 분야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행사에서 ▲국제 스트리밍 서밋 특별세션 참여 ▲상영회 및 투자유치 쇼케이스 개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상식 부문 시상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방미통위가 제작 지원한 작품들의 투자유치를 돕고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18일 개막행사로 열리는 '국제 스트리밍 서밋'에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각 국가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흐름(트렌드)을 소개하고 주요 국가의 맞춤형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특별 세션을 운영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우수 제작지원 작품을 시청할 수 있는 상영회가 개최되며, 지난해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작인 드라마 <모범택시3> 상영회와 강보승 감독, 배우 김의성, 표예진, 배우람 등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20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는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티브이(FAST) 관련 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투자유치 쇼케이스’도 열린다.

쇼케이스에서는 올해 방미통위 제작지원 작품인 <신인감독 김연경 시즌2>와 <상남자의 여행법 시즌2>를 국내외 투자사 등에게 소개하고, 작품성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해 해외 유통 및 투자 연계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상식에서 ‘베스트 숏폼상’ 부문 시상에도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숏폼 콘텐츠를 발굴하고 우수 크리에이터의 성과를 국내외에 알린다.

방미통위 박동주 사무처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우수 콘텐츠와 경쟁력 있는 플랫폼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 및 업계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플랫폼과 콘텐츠 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동완 (02-2110-1610)
		담당자	사무관	최일호 (02-2110-16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함형철 (02-2110-1620)
		담당자	사무관	유인설 (02-2110-1636)
		담당자	사무관	김혜자 (02-2110-163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담당자	과 장	김영주 (02-2110-1280)
담당자		사무관	김소라 (02-2110-1286)	
관련 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콘텐츠진흥팀	책임자	팀 장	한성돈 (061-350-1401)
		담당자	과 장	하승희 (061-350-1407)
	한국전파진흥협회 크리에이터미디어지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균택 (02-317-6196)
		담당자	과 장	김주현 (02-317-6067)